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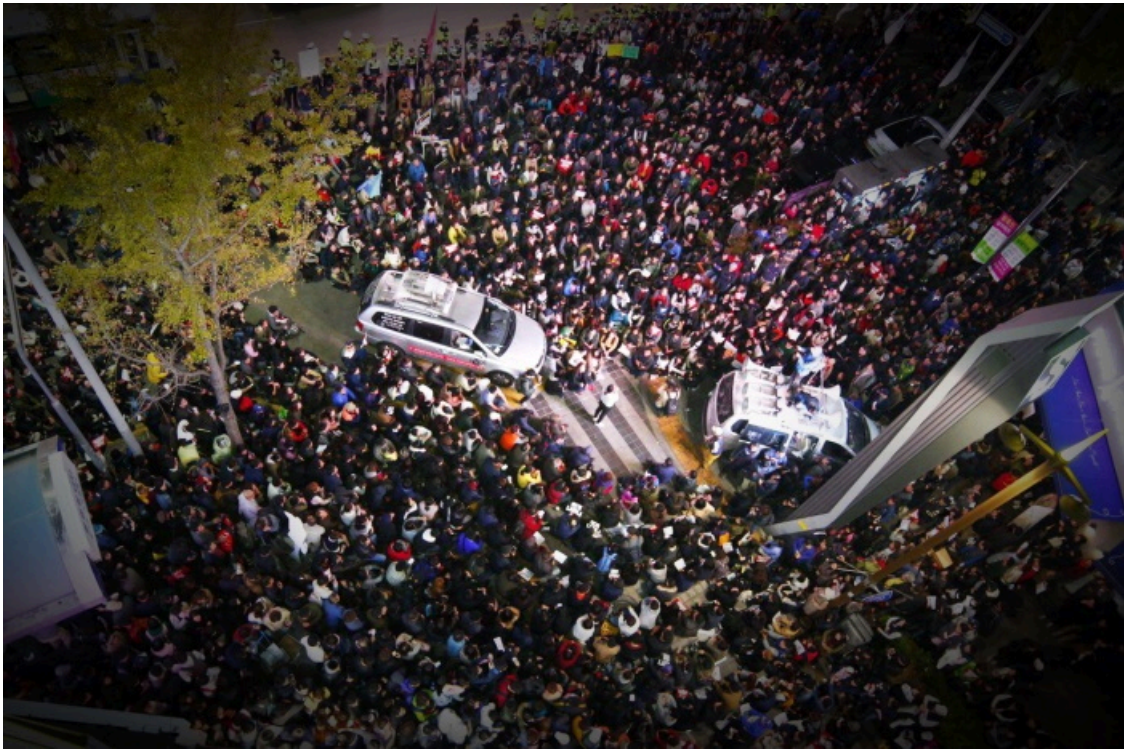
[5일 “박근혜 퇴진” 시위 3보] 촛불 전국 각지에서... 12일엔 서울로 ‘민중총궐기!’

✎ 박성식 | ⓒ 승인 2016.11.06 11:21

서울과 부산에선 ‘뒤풀이 집회’도 ... 시민자유발언 봇물



박근혜의 고향 대구,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산, 공식집회 종료 후 자정까지 계속된 "뒤풀이 집회"

5일 서울에서 2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권력타도 항쟁에 돌입하며 거대한 행진을 펼치던 시간. 전국 각지에서도 크고 작은 촛불이 타올랐다. 전국에서 대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서울과 지역을 포함해 5일 30만 명의 국민들이 궐기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벌어진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창원, 진해, 진주, 전주, 성주, 김천, 제주 등이며, 경기와 충청권 참가자들은 서울로 올라왔다.

제2의 수도 부산의 집회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장시간 이뤄져 '뒤풀이 집회'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역과 서면 태화 두 곳에서 각각 집회가 열린 후 행진을 통해 만나는 방식으로 시국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체 공식 집회가 마친 후에도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일명 '뒤풀이 집회'를 자정계까지 진행했다. 부산도 집회와 행진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한다. "부산에서 뭔가 일 내겠다"고 내다보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한편 고작 5%라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영하듯, '박근혜의 도시'라는 대구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박근혜 퇴진!"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제주지역 자체 집회로는 이례적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제주민들이 참여했다.



부산



부산



대구







대구







제주



제주



제주



전북 전주



전주







경남 진해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